

2013년 5월 12일 (일요일)

날씨 : 맑음

제목 : 행복한 하루

아침 일찍 일어나 단작친구 주환이와 만나  
학교로 향했다. 오늘은 4학년 구기대회 준결승·결승이  
있기 때문이다.

이길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학교로 향하는  
날절음은 그 어느때 보다 가벼웠다.

우리 반은 6반과 겨루었으나 안타깝게도  
지고 말았다.

결국 6반이 1등을 하고 2반이 2등을 하였다.  
구기대회를 마치고 서둘러 축구 수업에 합류하  
였다. 너무 늦어 조금밖에 못했지만.....  
집에 돌아와 점심을 먹고 아베와 공동 야구장  
으로 향했다. 넥센과 SK의 경기가 시작되  
였다.

3회 말까지는 2:1로 넥센이 SK에게  
물려다가 7회말에 갑자기 4점짜리 홈런을  
쳐서 5:2로 경기가 끝이 났다.  
정말 재밌는 야구 시합이었다.